

# KIA, 한화와 연습경기 ... 투수·외야수 뜨거운 선발 경쟁

투수 한승혁·유승철·윤중현

외야 이우성·고종욱·김호령 등

김종국 감독에 어필 무대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주전 경쟁 1라운드 대결을 전개했다.

KIA는 26·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와 연습경기 일정을 진행했다.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체력·기술 훈련을 하면서 시즌 준비에 공을 들였던 선수단은 지난 23일 훈련을 끝으로 광주로 장소를 옮겼다.

안방에서 실전모드에 돌입한 KIA는 주말 2연전을 통해 선발·외야 경쟁을 시작했다.

임기영·이의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일단 선발 두 자리가 빈 상황. 이의리는 큰 부상이 아닌만큼 개막전에 맞춰 시즌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김종국 감독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선발진을 구성하고 있다.

26일 윤중현이 가장 먼저 실전 점검을 받았고, 이민우도 마운드에 올랐다. 27일에는 한승혁이 이어 유승철이 연달아 출격해 어필무대를 가졌다.

1라운드 대결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한승혁이다.

한승혁은 30개의 공으로 10타자를 상대했다.

정민규에게 우전 안타는 맞았지만 고질적인 제구 난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또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을 활용한 공격적인 피칭으로 2회에는 3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기도 했다.

이날 17개의 직구를 던져 최고구속은 151km, 평균 144km를 찍으면서 스피드도 보여줬다.

한승혁에 이어 나온 유승철도 묵직한 직구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승철도 안타는 한 개 허용했지만 역시 3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으면서 맞불을 냈다. 34개의 공을 던지면서 7명의 타자를 상대,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 평균 142km를 기록했다. 6개의 슬라이더(평균 136km)도 선보였다.

선발 경쟁의 스타트를 끊은 윤중현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윤중현은 8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29개의 공을 던졌다. 최재훈에게 안타는 하나 맞았지만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사사구 없이 탈삼진 하나도 기록하며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이민우는 11명의 타자를 상대해 4피안타를 맞아 기록은 가장 좋지 않았지만, 김종국 감독이 강조한 '스피드'에 맞춰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김종국 감독은 27일 경기가 끝난 뒤 "한승혁이

공격적인 투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유승철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피칭이었다. 오랜만에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올라서 그런지 조금은 힘이 들어간 모습도 보였지만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외야 경쟁도 뜨겁게 진행됐다.

우익수와 중견수 자리를 선점한 나성범과 소크라테스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본 가운데 이우성, 고종욱, 김호령, 이창진, 김석환이 김종국 감독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줬다.

26일에는 김석환-김호령-이우성이 선발로 나란히 외야에 섰다. 27일에는 고종욱-김호령-이창진으로 외야 선발진이 구성됐다.

26일에는 이우성이 3안타를 터트리면서 감독이 꼽은 수훈선수가 됐고, 이날 고종욱은 KIA 연습경기 첫 홈런타자가 됐다. 캠프 합류가 늦었지만 김석환도 멀티히트로 연습경기 첫 기록을 장식했다.

26일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던 김호령은 27일 상대 좋은 수비에 막혀 안타는 더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수비 실력을 보여줬다. 이창진도 몸에 맞는 볼과 안타를 기록하는 등 외야에서 각기 다른 매력의 선수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승혁이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한화와의 연습경기에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 KIA 타이거즈, 공·수·주 스피드 높인다

'김종국호'의 스피드 야구가 시험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를 치렀다.

22일 자체 정복전 이후 두 번째 실전이자, 상대와의 첫 대결을 통해 김종국 감독이 강조해온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인 윤도현이 초구부터 타격에 나서서 등 야수들은 공격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고, 주자로 뛴 때는 과감하게 뛰었다. 김종국 감독은 두 차례 더블 스틸 사인도 내는 등 화력에 스피드를 더해 공세에 나섰다.

스피드는 마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우가 지난 시즌과 달리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면서 눈길을 끄는 등 마운드가 더 빨라졌다.

첫 연습경기에서 9회에도 더블 스틸 사인을 냈던 김종국은 감독은 "선수들한테 '언제 어디에서든 사인이 날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의미이자, '이렇게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었다. 상대를 압박해야 한다"며 "지금쯤 아웃 카운트 상관없이 (연습)하는 것이고 우리 팀 선수들이 상대 허점이 보이면 파고들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3안타를 기록했지만 도루실패와 주루사도 기록했던 박찬호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뛰려고 한다. 신인 때부터 감독님과 주루코치로 함께 해서 방향도 잘 안다. 무리한 플레이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감독님께서 박수를 쳐주시길 것이라 생각한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된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김 감독은 "두려움 없이 플레이를 하라고 했다. 뛰면서 상대 외야 송구 능력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배운다. 지금 실수나 실패를 해야 시즌 때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연습경기 시범경기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 등이 더 중요하다"고 과감한 도전과 시험을 강조했다.

투수들에게도 '스피드'를 언급하면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주문했다. 김종국 감독은 "투수들은 볼을 던지는 게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려고 던지는 것이다. 빠른 템포로 해야 뒤에 있는 야수들 집중력도 생긴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KIA가 공격적인 야구를 통해 공·수·주 모두 스피드를 높이고,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6일(한국 시간) 영국 웰랜드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토트넘 손흥민(왼쪽)과 해리 케인이 '37골 합작' 신기록을 세운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7

## 손흥민·케인 합작골 신기록 ... EPL 전설이 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0)과 해리 케인(29)이 프리미어리그(EPL) 최다 합작골 신기록을 썼다.

손흥민은 26일(한국시간) 영국 리즈의 웰랜드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40분 케인의 도움을 받아 추가골을 넣어 토트넘의 4-0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손흥민과 케인은 이로써 통산 37번째 골을 함께 만들었다. 첼시에서 뛴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 로그비의 36골을 넘어 새 역사를 썼다.

손흥민은 또 정규리그 10호 골을 신고해 2016-

2017시즌부터 6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올 시즌 공식전 11호 골이기도 하다. 그는 정규리그에서 10골 5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전반전을 3-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에도 기세를 유지했고, 손흥민도 몇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다.

후반 11분 센터서클 부근부터 페널티지역 정면까지 빠르게 돌파해 오른발 슈팅을 날린 것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5분 뒤에는 맷 도허티의 슈팅

이 골키퍼를 맞고 나온 것을 손흥민이 재차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수비수를 맞고 나왔다.

예열을 충분히 마친 손흥민의 득점포는 케인이 불을 뿜자 폭발했다.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센터라인 뒤에서 길게 로빙 패스를 건넸다. 문전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은 무릎으로 한 번 트래핑한 뒤 수비수 두 명을 뚫고 오른발로 슈팅해 골대를 갈랐다. 손흥민은 2분 뒤 데인 스칼렛과 교체됐다.

이날 패스로 토트넘은 7위(승점 42·13승 3무 9패)로 올라섰고, 리즈는 15위(승점 23·5승 8무 13패)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 헤이스 멀티골 ... 광주FC 시즌 첫 승

대전하나시티즌에 2-0 승리

전남은 김포FC에 0-2 패배

광주FC가 '남적'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2022시즌 첫승을 신고했다.

광주는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2022 K리그2 2라운드 경기에서 헤이스의 멀티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강팀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 광주는 앞선 김포와의 개막전 패배의 충격을 지우고 승격을 향한 행진을 시작했다.

헤이스가 해결사였다.

전반 10분 광주 정호연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지만 골대를 맞았다. 17분 코너리 상황에서 흐른 공을 잡은 이순민의 오른발 슈팅은 골키퍼 품에 안겼다.

전반 24분 골키퍼 김경민이 마사의 1대 1 슈팅 기회를 저지한 뒤 광주가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8분 페널티지역에서 공을 잡은 헤이스가 관한전에게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헤이스는 직접 키커로 나서 골키퍼를 속이고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전반 44분에도 헤이스가 주인공이 됐다.

정호연이 짧게 페널티 지역에 있던 이견희에게 공을 넘겨줬고, 이어 이견희가 뒤에서 기다리던 헤이스에게 패스를 했다.

공을 잡은 헤이스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이내 골망이 흔들렸다.

2-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에도 흐름을 주도했다.

이순민이 적극적인 수비는 물론 시원한 슈팅까지 날리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날 처음 광주 유니폼을 입고 골대 앞에 선 골키퍼 김경민은 후반 15분 역습 상황에서 김민규의 강력한 왼발 슈팅을 쳐내는 등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후반 34분 이정호 감독이 교체카드로 경기장 분위기를 바꿨다. 엄지성, 이상기, 이견희를 불러들인 이 감독은 하승운, 두현석, 허을을 동시에 투입하면서 스피드와 높이를 더했다.

그리고 새로 투입된 선수들이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광중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몇 차례 상대를 위협하는 공격 장면도 만들어졌다. 아쉽게 추가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광주는 그대로 리드를 지키면서 2-0 승리를 만들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복기해서 아쉬웠던 부분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선수들 잘해냈다. 투쟁심 있게 경기하고,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다. 승리도 중요하데 실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안아주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은 무덤덤하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음 경기, FA컵도 잘 준비하겠다"고 감독 데뷔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신생팀' 들풍의 희생양이 됐다. 전남은 지난 26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홈개막전에서 0-2로 졌다.

전반 9분 유혜이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전남이 8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3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었지만, 골대 골대를 뚫지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